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율법주의 제목 : 성령충만의 유익 성경 : 요한복음
7장28-39절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보내심은 익히 알려진 바다.

31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2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7:28-39)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필두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계명을 말한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 즉 구약 성경을 뜻한다.)

성경의 율법에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행위법(형법과 민법과 윤리), 속죄법(제사법), 성결법이다. 이 중 속죄(제사)에 관한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날 예배와 헌신으로 바뀌었고, 성결법은 예수님의 보혈과 회개함으로 대신하게 되었으며, 기타 성결법 가운데 위생과 음식에 관한 법은 병원, 경찰, 정부기관(식약청) 등에서 관리한다.

흔히 율법이라면 주로 행위에 관한 법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사람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규범을 정하게 되었는데 당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첨가하게 되었다.(탈무드에 기록됨) 그러다보니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실 때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이 지켜지는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율법이 되어버렸는데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율법주의라고 한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있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섬기기 위해 있다.)

예;‘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후대에 ‘나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고르반>’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 재물로 부모라도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래서 많은 욕심장이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고 말만하고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었다.

-특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간에 안식일 논쟁으로 논쟁이 많았다.

-그중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예수님과 대립하였다.

-안식일 논쟁과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로 가르치느냐가 중심 주제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가시적으로 세례요한의 세례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권위는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게 되어있다. (마치 한국전쟁이 북침이나 남침이나와 같은 이야기. 천안함 폭파 사건이 누구의 짓이나에 관한 것. 독도는 누구의 땅이나와 같은 맥락의 사건. 즉, 부러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왜? 율법주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전라도는 경상도를, 경상도는 전라도를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율법주의는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익을 옹호하는데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암묵적 이유)

율법주의의 증상

-율법의 원리나 정신 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묻게 된 고리타분한 생각에 집착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비난받지 않으려는데 집착한다.

-외모에 집착한다. 허례허식. (패션을 멋있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순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악하게 생각하고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난 받는 자들에게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긴다.)

-다른 차원의 생각에 대해서 단혀있다. 그러나 후에 깨달을 때가 있다.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영웅시하며, 그 사람의 영혼과 나를 합체시킨다고 믿는다. 인도사람들은 개에게도 전도한다. 나중에 환생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처럼 생각이란 엄청나게 다를 수 있고, 차원이 다르면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남서태평양 뉴기아에 있는 이리안자야섬의 사위부족 이야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

성령충만의 유익

율법주의	율법준수	성령충만
불편하다	평안하다	영생한다
정죄함으로 정죄받는다	죄에 대해 깨우친다	의에 대해 깨우친다
저주함으로 저주받는다	저주가 끊어진다	저주를 끊어준다
복을 독차지하며 표독스러워진다.(이 기적, 시기, 오만) -현재의 기독교.	복을 받는다	복을 나누어준다
방해한다.	번성한다	희생한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건강한 교회 말씀: 민수기 16장 1-33절

1 레위의 증손 고탓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리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 고리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6 이렇게 하라 너 고리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8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라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 하나님이 나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나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 이를 위하여 나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 네가 우리를 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5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현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17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이백오십 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8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19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0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1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2 그 두 사람이 앞드려 이르되 하나님이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26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27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28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29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16:1-33)

건강한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가 협력하는 교회

-성직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세대에 풀어 놓는다.

-성직자는 제사장의 역학을 감당하여(세례와 성만찬) 자신을 성결케 하며 평신도를 위해서 중보한다.

-성직자는 교회를 치리하며 목양을 감독한다.

-성직자는 평신도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자를 존경하고 본받으며 그 성직을 돕는다.

-평신도는 자신의 은사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한다.

-평신도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성직자를 섬기며 그 분배를 성직자에게 위임한다.

-성직자는 평신도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평신도는 성직자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특별한 경우는 제외)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그가 성직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님.

-또 평신도로서 많은 성직자를 후원하여 키워낼 수는 있어도, 그가 성직자를 위해서 성직을 감당할 수는 없다.

(만약 성직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평신도는 그 성직자를 위해서 성직을 감당해야 하는 특수한 이유가 발생했다면 몰라도.)